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 사사기 12:1-7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 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 4 입다가 길르앗 사람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 6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심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 7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쟁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외동딸에게 자기가 서원한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의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라면서 입다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저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라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싸잡아 조롱했습니다. 그에 대한 입다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거절하는 바람에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결과 이길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입다와 길르앗의 승리였습니다. 입다는 요단 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해보게 했습니다. 쉽볼렛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신병이 오면 고참들이 고향을 알아맞추는 내기를 하면서 항상 시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쌀집에 쌀이 싸다”. 그것을 “살집에 살이 사다”라고 발음하면 백 퍼센트 영남 지방 주민인 것입니다. 당시 에브라임에도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렛”이 아닌 “심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착각

전쟁 중에는 숨어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따지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친 후에야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망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며 좋은 말로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화풀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의 주도권을 뺏길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기 위한 욕심으로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서도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잘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입다는 거칠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 밖에 없었지만 입다에게는 길르앗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입다를 협박했습니다. 자기 딸을 불살라버린 입다를 잔인하게 조롱한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무남독녀였기 때문에 사실상 입다에게는 불살라버릴 집안도 남아 있지 않았습다. 거기에 더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라고 조롱했는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온 입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숨어 버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주도권과 전리품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으며,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를 조롱거리로 삼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입다의 분노와 폭력성이 더해진 결과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전쟁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일어난 내전입니다. 두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이 희생된지 알 수는 없지만 4만 2천 명이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사기는 사사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기사에서는 평안을 누렸다는 말씀이 없이,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 성읍에 장사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으로부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중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쟁, 진짜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은 진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초전에서는 승리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진 더 크고 중요한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적은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가 드러낸 비겁함, 탐욕, 이기심, 어리석음, 교만, 분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

민수기 20:1-13을 읽겠습니다.

❖ 민수기 20:1-13

-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과종 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듯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라. 그 앞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물을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

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 끝마다 “내가 말이야”를 붙인다든지, 자기가 겪은 일을 부풀려서 말한다든지, 실제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척 한다든지,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칠게 행동한다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과장된 말이나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였어야 하는데 반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두 번 때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화를 억누르고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은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노고가 얼마나 고된 것인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자신의 너그러움과 능력,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 받고 싶어서 과장된 말과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의 죄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항의하는 이스라엘 회중과 암몬 족속이라는 외부의 적은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초전 뒤에 이어진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속절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신명기 8:11-20을 읽겠습니다.

❖ 신명기 8:11-20

-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12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의 실패를 거울 삼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소와 양, 은금을 풍부하게 얻게 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정사실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외부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전쟁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정복했다는 교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불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진짜 전쟁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내전 기사로 끝이 납니다.

입다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내전,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내전은 신명기 8장의 성취이자 남북으로 분열되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앗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교만과 탐욕,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불신, 그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이라는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한 것이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3-12을 읽겠습니다.

❖ 디모데전서 6:3-12

-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12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직접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신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불신자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11절에서 가리키는 “이것들”이 신자의 대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교리가 아닌, 거짓된 교훈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허락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구원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릇된 교리를 용납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열심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얕은 성경 지식과 현란한 말을 앞세워 논쟁하기를 좋아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에서 떠나면 신자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경건조차 자기 영광과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탐욕에 빠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사, 날마다 공급해주시는 양식, 재물, 가정, 교회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신앙 생활의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과시하려 합니다. 성도가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일만 악의 근원인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으로 자신을 드러야 합니다. 논쟁과 시기와 비방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해, 마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과 싸우듯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지금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인가요? 일단 날씨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랜 시간 출퇴근 하시거나 더운 환경에서 일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날씨 때문에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몇 달 지나면

또 혹독한 추위가 닥칠텐데 그때는 만족스러울까요? 코로나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평범한 일상
은 추억이 되어버렸고 휴가 계획은 물 건너 갔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있으려니 호홉 곤
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 불만없이 행복할까요? 내 모든
염려와 고통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수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중 하나임에는 분명한 사실
입니다. 자녀들은 힘겨울 때 버틸 수 있는 힘이며 보람이고 소망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런 우리의 푸념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취질
까요?

지난 날의 혹독한 추위를 잊음으로 더위를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대적은 우리 안에 있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전의 비참했던
자신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지금의 나와 내가 기대했던 나를 끊임 없이 비교하면서 불만거리들을 찾습니다. 사랑과 섬김
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존재를 과시하려는 수단을 삼
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더운 날씨와 전염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
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망각과 탐욕과 교만과 불신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
인 승리를 약속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는 전초전에서 승리했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승리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내부의 적에게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
답하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차고 넘침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은 방
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세상의 일이든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든지 감당하기 힘
든 대적으로 인해 고단한 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
하여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적이든 내면의 적이든, 내 힘으로 이기기 불가능한 어떤 대적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
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
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자신의 진정한 대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2. 기도에 응답을 받거나 어려운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해결한 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 교
만, 탐욕 등 그 후에 이어진 싸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3.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단한 싸움이 무엇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구체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봅시다.